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김대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koreanedu@wku.ac.kr, 제1저자)

강경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grace86@wku.ac.kr)

* 이 논문은 2011년 원광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된 연구를 요약한
것임.

- I. 머리말
- II. 의사소통의 개념과 구성 요소
- III.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및 통계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상징체계가 있고, 이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의사소통 행위로 인해서 인간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화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이창덕 외, 2000: 5). 이러한 가치를 지닌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역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특히 언어 습득과 언어 발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 결과도 체계화되고 일반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유는 사고, 정서, 사회성 등 인간의 정신적 측면의 발달을 가능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소통이 문자나 음성 중심의

고전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IT 기술과 접목하여 복합 양식 의사소통(multimodal communication)의 양상을 띠면서 다른 사람과 정보와 의미를 나누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사회적 환경과 소통의 양상을 보면,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교섭에 의한 나눔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다. 곧 의사소통은 단순히 언어적인 전달과 이해로 정형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인 것이다.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 개인이 외부 세계와 정보와 느낌 등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조정해 가는 과정이다. 개인의 소통 방식은 개인과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각 개인의 경험과 느낌, 사회문화적 전통과 가치관 등이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이창덕 외, 2010: 20). 즉, 개인의 인지와 정서 발달이나 사회화의 정도에 따라 소통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발달과 소통 능력의 상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시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인지 및 정서 발달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언어 발달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최상위 단계에 위치해 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 학생들의 사고는 가능성에서 시작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추상적이며 연역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찾아내어 그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아낼 수 있고, 자신이 설정한 가설을 관찰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의사소통 능력은 성인이 되기 위한 자질이면서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학문적이고 메타적인 능력이다.

고등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과 적용은 성인과 어린이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의

사소통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음성 언어 사용 과정을 통해서 언어활동의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초점은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수행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특히 화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는 국내외 많은 연구 기관을 통해 제시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읽기와 쓰기 중심의 문식성(literacy)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한 의사소통 진단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하는 것이다. 평가 도구의 핵심은 그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인 타당도와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인 신뢰도이다. 개발될 의사소통 진단 도구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입하여 그 결과에 대해 진단 도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행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이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화, 측정방법, 측정도구 및 활용 등에 대한 문헌 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화용 능력에 대한 주요 요소와 하위 요소, 그 개념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어떤 개념적이고 철학적 정의를 사용할 것인가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구성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 검토이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 집단¹으로부터 1차로 개발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평가받고자 한다.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다. 전문가 집단이 검토할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의 타당성과 구성 요소별 설문 문항의 적절성이다. 전문가 집단의 검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검토 결과는 연구 참여자 간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통계 분석을 통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이다. 고등학교 2학년 남녀 479명(남 214명, 여 265명)을 표집 집단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평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집 집단은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개발된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예비 실험 후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II.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및 성격

모든 인간은 개체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와 개체 간의 유기적이고 소통하는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개체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는 작은 단위를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말, 언어의 힘 때문에 의사소통의 기능은 단순히 의미의 전달이나 소통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말하기나 일상 대화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절차

1 전문가 집단은 국내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화법 전공자 3인으로 구성하였다.

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창덕 외, 2010: 43).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듣는 사람의 특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들은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들은 메시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창호, 2011: 103).

D.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을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은 ①어떤 표현이 형식상 문법에 맞는가, ②어떤 표현이 언어 수행상 실현 가능한가, ③어떤 표현이 문맥적으로 적절한가, ④어떤 표현이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와 의미가 무엇인가 등을 아는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하임즈의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언어심리적·사회문화적 지식을 종합한 것이다. 그에 비해 M. Canale(1983)은 의사소통 능력이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1999: 610 재인용).

- ① 문법적 능력: 언어 기호에 대한 통달
- ② 사회언어학적 능력: 의미와 형식의 면에서 발화의 적절성에 대한 통달
- ③ 담화 능력: 통일성 있는 구어 또는 문어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문법적 형태들과 의미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통달
- ④ 전략적 능력: 의사소통의 중단을 보완하고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에 대한 통달

의사소통은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맥락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혹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서 ‘맥락’이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이다. DeVito(2000)는 이 맥락을 물리적 맥락, 문화적 맥락, 사회심리적 맥락, 시간적 맥락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편, Trenholm & Jensen(2000)은 관계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안에서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들은 의사소통을 ‘과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적 동의에 의한 활동으로 의사소통을 본 것이 특징이며, 의사소통은 상대방과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석재 외, 2003: 32~3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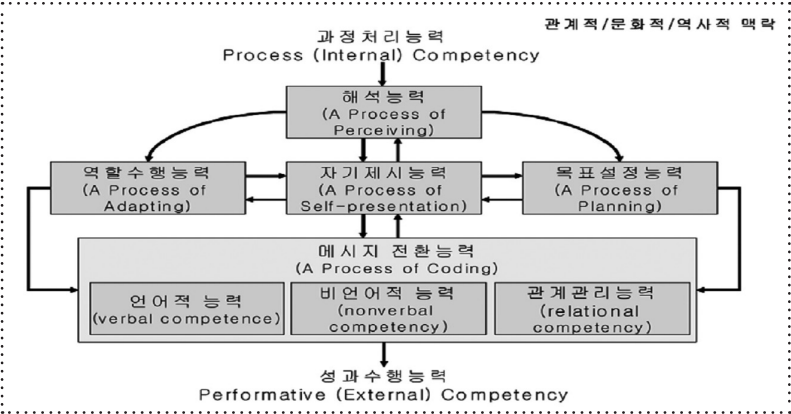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의 모델(Trenholm & Jensen, 200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 목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집단이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이나 정보를 의사교환 통로를 통하여 서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창호, 2011: 9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문어 소통 능력과 구어 소통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 소통 능

력을 중심으로 한 화행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기술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행위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Bishop(2003)의 CCC-2 도구,² 이석재 외(2003)의 생애능력 측정 도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국가영어능력평가)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 평가 기준, MaCay & Fanning(1995)의 의사소통 기초 능력, Canale & Swain(1980)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 등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들이 분류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의 대부분은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요소가 화자, 청자, 메시지, 장면(맥락)임을 고려해 볼 때, 화자만을 고려한 의사소통은 큰 의의가 없다.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주체의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본질임을 고려하였을 때,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 중 메시지는 수용과 생산 과정에만 관여할 뿐 그 자체가 능력 범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 중 메시지를 제외한 화자, 청자, 맥락을 변인으로 두고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

2 CCC-2(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2)는 D. Bishop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사용되어 온 검사로 4~16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 장애를 선별하고, 화용 능력에 있어서 장애 유무를 판별하며, 자폐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표 1. 선행 연구의 의사소통 하위 범주 분류

D. Bishop (2003)		이석재 외(2003)	
언어 구조	발음	해석 능력	정보수집
	구문		경청
	의미	역할 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결속성		창의적 의사소통
화용	부적절한 발화	자기제시 능력	자기 드러내기
	정형화된 언어	목표설정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맥락	메시지 전환능력	타인관점 이해
	비언어적 소통		
사회성	사회적 관계		
	흥미		
McKay 외(1995) ³	NEAT		Canale & Swain(1980) ⁴
청취	[말하기]	[듣기]	문법적 능력
자기 드러내기	과제 완성	적절한 응답 파악	사회언어학적 능력
표현	유창성	중심 내용 파악	담화적 능력
	언어 사용	특정 정보 파악	전략적 능력
	구성	묘사 대상 파악	
	발음		

- 3 청취는 능동적인 청취, 감정이입을 수반한 청취, 개방적인 청취, 이해를 수반하는 청취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기 드러내기는 자신의 태도, 가치관, 생각, 아이디어 등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현은 관찰한 것 표현, 생각한 것 표현, 느낀 것 표현, 요구사항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 4 문법적 능력이란 발음, 어휘, 문장 구조 등 언어적인 기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적절한 발화를 생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언어학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담화적 능력이란 형태적인 응집성과 의미적인 긴밀성을 지닌 발화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며, 전략적인 능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편, 2005: 179).

다. 화자 변인에 의해서는 말하기 능력, 청자 변인은 듣기 능력, 그리고 화자와 청자 변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계, 맥락에 해당하는 공통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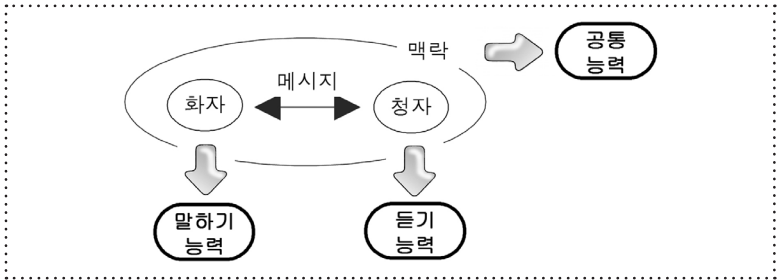


그림 2. 의사소통 요소와 의사소통 능력 하위 범주

선행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말하기 능력’의 세부 요소로는 유창성, 발화의 논리적 구성,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 발음의 여섯 요소로 구분하였고, ‘듣기 능력’으로는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의 네 요소로, ‘공통 능력’으로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총 13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
유창성	사실적 듣기	맥락
논리적 구성력	추론적 듣기	사회적 관계
언어적 표현	비판적 듣기	태도
비언어적 표현	공감적 듣기	
자기표현		
(발음)5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는 표현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다. ‘유창성(fluency)’은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나 정도를 말한다. ‘논리적 구성력’은 발화의 논리적 연결성을 알아보기 위한 범주이다. ‘언어적 표현’은 구두 언어로 의사를 나타내고 이해함에 있어서 어휘 사용의 적절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며, ‘비언어적 표현’은 반언어·비언어와 같이 언어적 요소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표현’은 의사소통과 자아인식 혹은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표현의 전략과 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화행의 내용이나 담화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자기의 내적인 감정과 처지,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능력은 학교 교육과정의 듣기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사실적 듣기’는 주의를 기울여 소리를 지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들은 정보를 조직화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과정이며, ‘추론적 듣기’는 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언어적 요소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반언어적 표현과 몸짓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단서로 활용하여 그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을 말한다. ‘비판적 듣기’는 이해 또는 해석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전달한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평가의 과정이다(최미숙 외, 2012: 156).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이창덕 외, 2010: 120).

의사소통에서 ‘공통능력’으로 구분한 항목으로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가 있다. 이 중 ‘맥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장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항목이며, ‘사회적 관계’는 대화 참여자 간 대인 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5 발음은 1차 연구를 통해 말하기 능력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에 따라 언어적 표현과 통합하였다.

범주이다. ‘태도’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동기와 흥미 혹은 공감과 배려를 핵심 요소로 설정하였다.

Ⅲ.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및 통계 분석

1. 진단 도구의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진단 도구는 크게 7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각 연구 단계의 내용 및 분석 방법 및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 단계

단계	내용	분석 방법	결과
1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 추출	문헌 연구	•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으로 구분 • 말하기 6요소, 듣기 4요소, 공통 능력 3요소로 구성
2	구성 요소별 문항 개발	집단 토의	• 말하기 능력 42문항, 듣기 능력 28문항, 공통 능력 22문항
3	전문가 집단의 검토	타당성 평가	• 구성 요소별 문항 수정 및 제거 의견 • 문항의 영역 분류 오류 수정
4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조정	집단 토의	• 말하기 능력 5요소 35문항, 듣기 능력 4요소 28문항, 공통 능력 3요소 22문항으로 조정
5	고등학생 대상 설문 조사	설문 조사	• 고등학교 2학년 479명 응답 • 불성실 응답 20개 제거 후 459개의 응답으로 분석 확정
6	통계 처리	통계 분석	• SPSS 18을 이용한 타당도, 신뢰도 검증
7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확정	집단 토의	• 말하기 능력 5요소 19문항, 듣기 능력 4요소 17문항, 공통 능력 3요소 12문항 추출

1) 단계 1: 문헌 연구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 추출

이 단계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연구자 간의 집단토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하위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말하기 능력은 유창성, 발화의 논리적 구성력, 발음,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의 6요소로 세분화하였고, 듣기 능력은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로 하위 요소를 설정하였으며, 공통 능력은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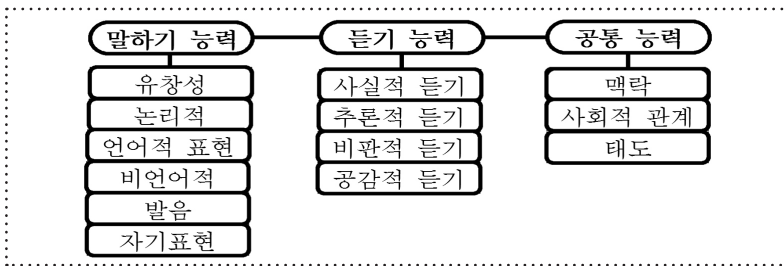


그림 3.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1차)

2) 단계 2: 구성 요소별 문항 개발

이 단계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인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에 해당하는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하여 그 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각 구성 요소별로 기본적으로 7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문항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부록 1 참고). 초기 문항들은 기존의 검사 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을 재사용하거나 이론서들에서 언급된 화해 능력의 세부 항목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3) 단계 3: 전문가 집단 검토

이 단계는 단계 2에서 개발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수행

한 단계이다. 전문가 집단은 화법 교육과 의사소통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집단이 검토한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 범주의 분류와 내용의 타당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를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 공통 능력으로 범주화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둘째, 말하기·듣기·공통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하위 구성 요소의 적절성 검토, 셋째, 하위 구성 요소별 개발 문항의 타당성 검토이다.

4) 단계 4: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조정

이 단계는 연구자 간 집단 토의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 1과 단계 2에서 추출했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및 진단 문항을 조정하여 1차 설문 문항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말하기 능력 요소를 6개의 요소에서 5개로 조정하고, 문항 수도 42문항에서 35문항이 삭제되어 35문항으로 줄었다. 듣기 능력과 공통 능력은 하위 영역의 조정 없이 문항 수정만 이루어졌다.

표 4.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조정 내용

의사소통 능력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내용
말하기 능력	6요소 42문항	5요소 35문항	(발음) 항목 제거
듣기 능력	4요소 28문항	4요소 28문항	문항 일부 수정
공통 능력	3요소 22문항	3요소 22문항	문항 일부 수정
계	13요소 92문항	12요소 85문항	1요소 7문항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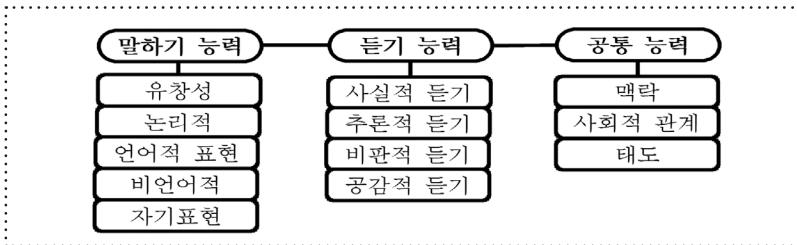


그림 4.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2차)

5) 단계 5: 설문을 통한 기초 조사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진단 예비 검사를 통해 1차로 개발된 진단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기초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79명(남학생 214명, 여학생 265명)이다. 대상 학교는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를 단순 무선 표집(random sampling)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따라 응답하였다. 설문을 정리한 결과, 불성실 응답(동일 번호 응답, 규칙적인 응답, 다수 문항 미응답) 20개(남학생 19명, 여학생 1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통계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설문 문항은 부록 2와 같다.

표 5. 설문을 통한 기초 조사 자료

대상 학교	조사 대상자	불성실 응답자	통계 분석 자료(n)
○○고	214명	19명	195
△△여고	265명	1명	264
계	479명	20명	459

6) 단계 6: 통계 분석

이 단계는 단계 5에서 실시한 기초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단계이다.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8이며, 통계 분석의 주요 내용은 범주별 문항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다. 통계 분석을 위해 부정 행동 패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역산출(1-5점, 2-4점)하여 수집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통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한다.

7) 단계 7: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확정

이 단계는 단계 6의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별 측정 문항 중 타당도와 신뢰도가 기준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고교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검증 결과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한 후, 확정된 문항은 말하기 능력 5요소 20문항, 듣기 능력 4요소 17문항, 공통 능력 3요소 12문항이다.

표 6. 통계 분석 후 구성 요소 및 진단 항목 조정 내용

의사소통 능력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내용
말하기 능력	유창성	7	4	3문항 삭제
	논리적 구성력	7	4	3문항 삭제
	언어적 표현	7	5	2문항 삭제
	비언어적 표현	7	3	4문항 삭제
	자기표현	7	3	4문항 삭제
듣기 능력	사실적 듣기	7	4	3문항 삭제
	추론적 듣기	7	5	2문항 삭제
	비판적 듣기	7	4	3문항 삭제
	공감적 듣기	7	4	3문항 삭제
공통 능력	맥락	7	4	3문항 삭제
	사회적 관계	8	4	3문항 삭제
	태도	7	4	3문항 삭제
계		85	48	37문항 삭제

7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실체는 부록 3과 같다.

2. 진단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 및 분석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개발된 진단 도구의 과학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증은 통계 분석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로 기존 문헌을 통해 추출된 변수와 해당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만들어진 다항목 변수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된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 분석 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추출은 일반적인 기준인 요인 적재값⁶ 0.4 이상과 아이겐 값⁷ 1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신뢰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 즉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구성 개념 측정을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므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지의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⁸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계수가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초과하여야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란 개별 문항들이 해당 요인 각각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항목이 해당 요인에 잘 묶인다고 표현한다.

7 아이겐 값(eigen value)이란 요인이 설명해 주는 분산의 양을 말한다. 아이겐 값이 1 이상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 줄 수 의미하며, 아이겐 값이 1 이하가 되면 1개의 요인이 1개의 변수에 해당하는 분산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변수 집단으로서의 요인의 의미가 없다.

8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는 테스트나 척도가 어느 정도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의 하나로서 상관 계수와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테스트 항목의 신뢰도가 높다. 주로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인 경우에 이용된다(노형진, 2005:10).

의사소통 능력의 문항 추출 절차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검증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문항 제거하였다. 2차 검증에서는 크론바하 알파를 통한 신뢰성 검증 실시 후 신뢰성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3차 검증을 통해 1차와 2차 검증에서 제거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 실시하였다.

표 7. 통계 분석을 통한 검증 단계

단계	검증 내용
1차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후 요인 계수 낮은 문항 제거
2차	크론바하 알파를 통한 신뢰성 검증 후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 제거
3차	1차와 2차 검증에서 적재된 문항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1) 말하기 능력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5개 하위 항목의 35개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은 19문항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표 8과 같다. 요인별 측정 문항의 배열 순서는 요인 적재값의 크기에 따른다.

표 8. 말하기 능력 구성 요인별 타당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범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eigen값	설명력	신뢰성 (Cronbach's α)
말 하 기	유창성	4.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795	2.013	50.326	.665
		3. 말을 잘 시작하지 못한다.	.790			
		5.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	.635			
		1. 말을 하는 도중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1~3초 정도를 침묵으로 흘려보낸다.	.595			

범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eigen값	설명력	신뢰성 (Cronbach's α)
말 하 기	논리적 구성력	4.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다.	.694	2.087	29.810	.602
		2. 어떤 이야기에 대해 말하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혼동한다.	.689			
		1. '그' 혹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말한다.	.673			
		3.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로 말한다.	.645			
	언어적 표현	3.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ㅅ'을 /th/로, '사랑'을 '샤랑'으로 발음하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다.	.731	1.525	30.492	.627
		6. '여덟→[여덜]'이나 '달아→[달기]' 등과 같이 표준발음법을 의식하며 말을 한다.	.685			
		2.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를 혼동한다.(예: 하루살이를 모기라고 한다든가, 잔을 컵이라고 말한다.)	.627			
		1. 줄임말을 사용한다. (예:문화상품권을 '문상', 이성 친구를 '남친' 혹은 '여친'이라고 말한다.)	.564			
		4. '존나/줄라', '병신' 등의 욕설이나 '숙제 개 많아', '꺼져' 등 격이 떨어지는 말을 사용한다.	.520			
	비언어적 표현	5.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775	1.610	53.657	.615
		7.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때 미소를 짓는다.	.724			
		6.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소리의 높낮이 등을 조절한다.	.697			
	자기표현	6.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분명히 말한다.	.701	1.301	43.373	.603
		5.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653			
		7.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요구를 말할 수 있다.	.619			

말하기 능력의 측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선정된 35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16개의 문항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검증 후 추출된 문항은 유창성 4문항, 논리적 구성력 4문항, 언어적 표현 5문항, 비언어적 표현 3문항, 자기표현 3문항이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0.4 이상을 상회하고 신뢰성 계수도 0.6을 이상을 만족시키고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응백·이주행(1992)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구비 요건을 인간 수양, 인간관계, 풍부한 화제, 어휘력, 경어법과 인사, 유머와 몸말, 정확하고 효과적인 발음 등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 인간 수양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말하기에 대한 화자의 기반 지식에 해당한다. 전은주(1999: 179~180)에서는 말하기 능력이라는 것은 화자가 갖춘 화법 지식보다는 말하기를 위한 기반 자원과 그것을 수행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내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상적 화자에게 필요한 조건은 다양한 말하기 수행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말하기의 과정에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 청자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담화의 관계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의 폭이 이렇듯 넓음은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인 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문항들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문항이라기보다는 말하기 능력을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하위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가 요인 분석의 결과로 삭제된 문항인, “말하는 도중 불필요한 간투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자신이 알고 있던 단어를 잊어버린다.” 등의 항목은 말을 하는 상황과 화자의 말하기 양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창성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다른 범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는 유창성만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하였을 때, 7번 항목(자신이 알고 있던 단어를 잊어버린다.)과 2번 항목(말하는 도중 불필요한 간투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이 하나

의 변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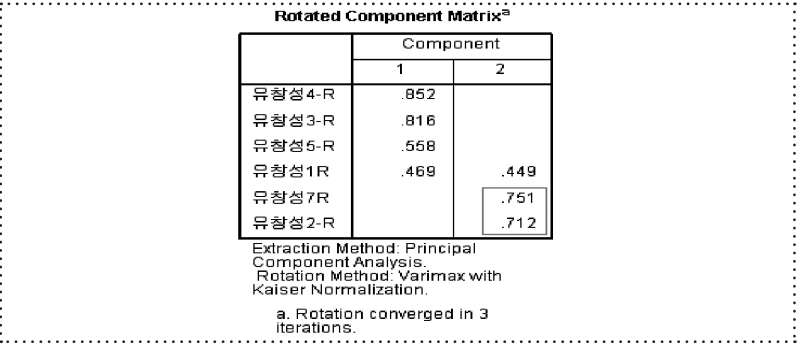


그림 5. 유창성 변인 분석

2) 듣기 능력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듣기 능력을 구성하는 4개 하위 항목의 28개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듣기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은 17문항(사실적 듣기 4문항, 추론적 듣기 5문항, 비판적 듣기 4문항, 공감적 듣기 4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다. 요인별 측정 문항의 배열 순서는 요인 적재값의 크기에 따른다.

표 9. 듣기 능력 구성 요인별 타당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범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eigen값	설명력	신뢰성 (Cronbach's α)
듣기	해석적 듣기	2.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807	2.066	51.640	.679
		1.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한다.	.776			
		4. 상대방이 한 얘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한다.	.645			
		7.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쉽게 안다.	.630			

범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eigen값	설명력	신뢰성 (Cronbach's α)
듣 기	추론적 듣기	1.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안다.	.726	2.169	43.372	.668
		4. 대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709			
		3. 우회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700			
		2.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570			
		5. 대화 중간에 긴 경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569			
	비판적 듣기	4.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	.760	2.030	50.761	.676
		2.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안다.	.725			
		5. 상대방이 말에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699			
		3.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663			
	공감적 듣기	1.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758	1.972	49.309	.649
		2. 상대방의 말에 “그래서?”, “그런데?”, “어머, 정말?” 등과 같이 관심을 표현한다.	.741			
		4.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671			
		3.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내 감정을 이입한다.	.631			

듣기 능력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하위 항목, 28개의 문항에 대하여 타당성

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17개 문항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항은 모두 11개 문항이며, 하위 영역별로는 사실적 듣기 3문항, 추론적 듣기 2문항, 비판적 듣기 3문항, 공감적 듣기 3문항이다. 적재된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이며, 크론바하 알파 검증에 의한 신뢰도 계수도 0.6 이상을 만족시키고 있어 듣기 능력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적재된 모든 항목이 긍정 행동을 기술한 문항으로만 도출되어 측정에 효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적재된 17개의 항목은 문헌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듣기 능력을 말하기 능력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담화에서 한 개인은 화자이면서 동시에 잠재된 청자이며, 청자이면서 동시에 잠재된 화자이고 또 담화의 과정이 이 두 참여자의 상호교섭적 과정이므로 적극적 청자의 역할은 적극적 화자의 역할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

3) 공통 능력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공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항목이다. 이에 대해 22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한 후,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10은 통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공통 능력 구성 요인별 타당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범주	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eigen값	설명력	신뢰성 (Cronbach's α)
공 통	맥락	7.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719	1.933	48.334	.641
		5. 문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한다.	.706			
		2. 어떤 단어가 보통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때 혼란스러워한다.	.686			
		6. 반어를 이용한 유머를 이해할 수 있다.	.668			

공	사회적 관계	3.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852	2.257	56.424	.728
		4. 다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824			
		2.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767			
		5.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한다.	.512			
통	태도	2. 대화 중에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무언가를 뒤적이는 등 딴짓을 한다.	.746	1.614	40.360	.607
		3.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것에 대해 혼자 이야기한다.	.680			
		1.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635			
		4.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진다.	.438			

공통 능력을 구성하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하위 항목의 22개 문항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각 구성 요소별로 4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10개의 문항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적재된 문항은 모두 요인 적재값 기준인 0.4를 상회하고, 신뢰도 검증 결과도 기준치인 0.6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공통 능력은 말하기와 듣기 상황을 둘러싼 환경적인 변인이다. 맥락과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가지로 모든 환경적 변인을 아우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성립되리라 기대한다.

유능한 의사소통자는 모든 이야기에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예를 들어 바빠 출장길을 떠나는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적절성과 효율성의 문제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긴 하지만, 상황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의사소통은 관계 규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야기되는 관계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통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는 사람들이 발화 상황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 속에서만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능한 의사소통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관계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맞추어 조정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이창덕 외, 2000: 15~16).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진정성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말을 인격 수양의 한 방편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우리의 말 문화를 지켜 소통한다면, 더 값진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의사소통이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 발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닌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D. Bishop(2003)의 CCC2 도구, 이석재 외(2003)의 생애능력 측정 도

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NEAT 말하기와 듣기 능력 평가 기준, MaCay & Fanning(1995)의 의사소통 기초 능력, Canale & Swain(1980)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 등을 참고하였다.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 중 메시지를 제외한 화자, 청자, 맥락을 변인으로 두고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화자 변인에 의해서는 말하기 능력, 청자 변인은 듣기 능력, 그리고 화자와 청자 변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계, 맥락에 해당하는 공통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말하기 능력’의 세부 요소로는 유창성, 발화의 논리적 구성,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의 5요소로 구분하였고, ‘듣기 능력’으로는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의 4요소로, ‘공통 능력’으로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총 12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1차로 확정된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해 통계 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문항 추출 절차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검증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문항 제거하였다. 2차 검증에서는 크론바하 알파를 통한 신뢰성 검증 실시 후 신뢰성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3차 검증을 통해 1차와 2차 검증에서 제거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도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상황은 그 대상이나 유형,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용어가 다소 무색하다. 예를 들어, 공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와 사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가 다르고, 일대일 의사소통 상황과 일대 다수의 의사소통 상황이 다르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을 하나의 도구가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자가 진단 평가와 관찰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자가 진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교사나 부모, 동료의 관찰에 의한 평가를 병행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숍의 D.CCC2 도구는 교사의 관찰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피평가자가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자기 평가와 더불어 관찰 평가가 병행된 형태가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을 표준화할 수 있는 수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는 단순히 백분위 점수로 도출되어 절대 수치로 나타나지만, 또래들과의 상대 비교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표준점수로 환산을 하듯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도 수학적 해석을 동원하여 상대 비교 결과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2.10.29.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2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국어과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과학기술부.
- _____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 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및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공개 토론회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11-18,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상준(2007),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역락.
- 노형진(2005),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형설출판사.
- 서경희(2010), 「CCC2를 이용한 아동 의사소통 능력 발달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5집, 순천향대학교.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
- 심현섭 외(2010), 『의사소통장애의 이해』, 학지사.
- 이경우 · 김경희(2007),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역락.
- 이소현 · 박은혜(2011),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웅백 · 이주행(1992),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문학사.
- 이주행 외(2004), 『화법교육의 이해』, 박이정.
- 이찬규 옮김(2003),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이창덕 외(2010), 『화법교육론』, 역락.
- 이창호(2011), 『아동의 의사소통교육』, 양서원.
- 임칠성(1997), 「화법 교육의 방향 연구」, 『국어교육』 9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 임태섭(1997),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암사.
- 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 최미숙 외(2012),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Bishop, D. V. M.(2003),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 - 2*, Pearson.
- Canale, M.(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Richards and Schmidt(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gman.
- Canale, M. & Swain, M.(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 Flavell, J. H. (1993),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Goldstein, H., Kaczmarek, L. A., & English, K. M. eds. (2002), *Promoting social communicati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birth to adolescence*, Baltimore, MD: Brookes Publishing.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J. B. Pride and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 Johnson, K. (1998), Entry for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K. Johnson and H. Johnson (eds.), *Encyclopaedic Dictionary of Applied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 McKay, M., Davis, M. & Fanning, P. (1995),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2nd ed.), Oakland: New Harbinger.
- Reardon, K. (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here Minds Meet*, 임철성 역 (1997),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 Trenholm, S. & Jensen, A. (200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부록 1 구성 요소별 개발 문항(1차)

❖ 말하기 능력 구성 요소

[유창성]

말을 하는 도중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1~3초 정도를 침묵으로 흘려보낸다.

“그니까”, “막 이래”, “어”와 같은 단어(간투사)를 말하는 도중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말을 잘 시작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

유창하고 명확하게 망설임 없이 말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내가 말을 할 때 전달하는 바를 잘 이해한다.

말할 내용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간결하고 분명하게 내 의사를 전달한다.

[발음]

줄임말을 사용한다. (예: 문화상품권을 ‘문상’, 이성 친구를 ‘남친’ 혹은 ‘여친’이라고 말한다.)

생소한 단어나 긴 단어를 발음할 때, 실수를 하거나 머뭇거린다.

아이 같은 말투로 발음한다. (예: ‘그랬어’를 ‘그래썸’, ‘갈거야’를 ‘갈꼬야’라고 말하거나, ‘나’가 아니라 ‘민경이는’처럼 본인의 이름을 넣어 주어를 만든다.)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ㅅ’을 /th/로, ‘사랑’을 ‘샤랑’으로 발음하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다.

‘여덟→(여덜)’이나 ‘닭이→(달기)’ 등과 같이 표준발음법을 의식하며 말을 한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계정을 전달할 때처럼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한다.

적절한 부분에서 끊어서 말을 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언어 사용] 어휘 사용의 적절성/표현의 정확성

적절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부적절하지만 비슷한 의미의 어휘로 대체하여 말한다.

자신이 알고 있던 단어를 잊어버린다. (예: ‘올레길’이라는 단어를 잊고, “왜 있잖아, 제주도에도 있는 산책길 말이야.”라고 말한다.)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를 혼동한다. (예: 하루살이를 모기라고 한다든가, 잔을 컵이라고 말한다.)

‘존나/줄라’, ‘병신’ 등의 욕설이나 ‘숙제 개 많아’, ‘꺼져’ 등 격이 떨어지는 말을 사용한다.

외국어, 외래어보다는 고유어나 순화된 말을 사용한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말을 한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은 예를 들거나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구성) 발화의 논리적 연결성

‘그’ 혹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말한다. (예: 어떤 영화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그 사람 정말 멋지더라.”고 말한다.)

어떤 이야기에 대해 말하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혼동한다.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로 말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다.

시제(과거, 현재, 미래)에 맞게 말을 한다.

대화 주제를 인식하며 말을 한다.

말하는 내용이 자신의 의견인지 실제 사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표정을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에도 혼자 명한 표정을 보인다.

상대방과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에서 말하거나 반대로 멀리 떨어져서 말한다.

상대방을 보지 않고 이야기한다.

말하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한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소리의 높낮이 등을 조절한다. (예: 발표를 할 때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억양이나 말투, 목소리의 높이, 크기 등을 달리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때 미소를 짓는다.

(자아노출)

상대방의 충고에 대해 나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변명이나 변호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만큼만 나도 상대방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친하지 않지만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한 친구일지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분명히 말한다.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 털어놓는다.

❖ 듣기 능력 구성 요소

(사실적 듣기)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한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구분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한 얘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한다.

상대방이 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그냥 듣는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말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면 대충 흘려 듣는다.

[추론적 듣기]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를 때, 화가 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우회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예: 밤늦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는 경우,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고 자라는 의미임을 안다.)

대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다이어트 하는 친구가 “어젯밤에 라면 먹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했음을 안다.)

대화 중간에 긴 경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대화중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칭찬하고 있는지 혹은 비꼬고 있는지 모른다.

모르는 단어가 대화중에 나오면 무슨 뜻인지 물어서 알고 난 이후 다음 이야기를 듣는다.

[비판적 듣기]

상대방의 말을 믿음만한지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는다. (예: 친구가 “우리 수학여행 일본으로 간대. 누가 교무실에서 엿들었다는데.”라고 말을 하면,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

회의 시간에 친구의 발언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 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안다. (예: 누군가 “좌석 배치는 키를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공정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말에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안다. (예: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

상대방이 부탁할 때, 눈물을 글썽이면 들어준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 그런데?” 등과 같이 관심을 표현한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내 감정을 이입한다. (예: 성적이 떨어져서 시무룩한 친구 앞에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화를 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상대방의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주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는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듣는다. (예: 친구가 부모님과 다투서 속상해할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상대방이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우선 진정시킨다.

❖ 공통 능력 구성 요소

[문맥]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단어가 보통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때 혼란스러워 한다. (예: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차갑다'라고 묘사하는 경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 친숙한 사람과 일대일로는 대화를 잘하지만, 또래 아이들과 모여 있을 때는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문장 속의 한두 단어만을 들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

문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한다.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니?"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아니, 너는 그냥 너의 한 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꺼내고 다른 다리를 꺼내고 일어서면 돼."라고 대답한다.)

반어를 이용한 유머를 이해할 수 있다. (예: 비가 오고 있을 때, 누군가 "날씨가 아주 좋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예: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낯선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지켜야 할 비밀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다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대화를 조절한다. (예: 대화중 상대방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말을 줄이거나 주의를 집중시킨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흥미를 보인다.

[태도]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대화중에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무언가를 뒤적이는 등 딴짓을 한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것에 대해 혼자 이야기한다.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진다.

전통적 말문화를 대화에 반영한다. (예: 어른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며, 겸손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도,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예: 대화참여자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에 참여하기보다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을 한다.

부록 2 의사소통 능력 진단 설문지

이 조사는 여러분의 일상의 의사소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그리고 그 이외의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는지 생각하여 그 정도를 빠르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대희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2	3	4	5

❖ 말하기

번호	문항	얼마나 자주?
1	말을 하는 도중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1~3초 정도를 침묵으로 흘려보낸다.	
2	말하는 도중 불필요한 ‘그니까’, ‘막 이래’, ‘아’와 같은 단어(간투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3	말을 잘 시작하지 못한다.	
4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	
6	망설임 없이 말을 한다.	
7	자신이 알고 있던 단어를 잊어버린다. (예: ‘올레길’이라는 단어를 잊고, “왜 있잖아, 제주도에 있는 산책길 말이야.”라고 말한다.)	
8	‘그’ 혹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말한다. (예: 어떤 영화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그 사람 정말 멋지더라.”고 말한다.)	
9	어떤 이야기에 대해 말하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혼동한다.	
10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로 말한다.	
11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다.	
12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핵심을 짚어 대답을 한다.	
13	대화 주제를 인식하여 말을 한다.	
14	말하는 내용이 자신의 의견인지 실제 사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한다.	
15	줄임말을 사용한다. (예: 문화상품권을 ‘문상’, 이성 친구를 ‘남친’ 혹은 ‘여친’이라고 말한다.)	
16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를 혼동한다. (예: ‘하루살이’를 ‘모기’라고 한다든가, ‘잔’을 ‘컵’이라고 말한다.)	

17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ㅅ'을 /th/로, '사랑'을 '샤랑'으로 발음하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다.	
18	'존나/졸라', '병신' 등의 욕설이나 '숙제 개 많아', '꺼져' 등 격이 떨어지는 말을 사용한다.	
19	'여덟→(여덜)'이나 '닭아→(달기)' 등과 같이 표준발음법을 의식하며 말을 한다.	
20	전화번호나 이메일 계정을 전달할 때처럼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한다.	
21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말을 한다.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표정을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에도 혼자 멍한 표정을 보인다.	
23	말을 할 때, 손이나 팔 동작이 부자연스럽다.	
24	상대방을 보지 않고 이야기한다.	
25	말하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한다.	
26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27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소리의 높낮이 등을 조절한다. (예: 발표를 할 때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억양이나 말투, 목소리의 높이, 크기 등을 달리한다.)	
28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때 미소를 짓는다.	
29	상대방의 충고에 대해 나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변명이나 변호를 한다.	
30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만큼만 나도 상대방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31	친하지 않지만 친해지기 위해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32	친한 친구일지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33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34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분명히 말한다.	
35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요구를 말할 수 있다.	

❖ 듣기

번호	문항	얼마나 자주?
36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한다.	
37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38	상대방이 한 이야기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구분하며 듣는다.	
39	상대방이 한 얘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한다.	
40	상대방이 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화를 마무리한다.	

41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했던 말을 또 하게 하거나 대화가 끊긴다.	
42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쉽게 안다.	
43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안다.	
44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45	우회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예: 밤늦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는 경우,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고 자라는 의미임을 안다.)	
46	대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다이어트 하는 친구가 “어제밤에 라면 먹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했음을 안다.)	
47	대화 중간에 낀 경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48	대화중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칭찬하고 있는지 혹은 비꼬고 있는지 모른다.	
49	모르는 단어가 대화중에 나오면 일단 무슨 뜻인지 물어서 알고 난 이후 다음 이야기를 듣는다.	
50	상대방의 말을 믿을 만한지 생각하며 이야기를 듣는다. (예: 친구가 “우리 수학여행 일본으로 간대. 누가 교무실에서 엿들었다는데.”라고 말을 하면,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	
51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 안다.	
52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53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 (예: 누군가 “좌석 배치는 키를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을 안다.)	
54	상대방이 말에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예: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없어.”라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	
55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면 받아들인다. (예: 친구에게 숙제를 보여 주기 싫지만, 눈물을 글썽이면 들어준다.)	
56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57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58	상대방의 말에 “그래서?, 그런데?, 어머, 정말?” 등과 같이 관심을 표현한다.	
59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내 감정을 이입한다. (예: 성적이 떨어져서 시무룩한 친구 앞에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화를 한다.)	
60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61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주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는다.	
62	상대방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때, 우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예: 친구가 부모님과 다투서 속상해할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63	상대방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내키지 않으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한다.	
----	--	--

❖ 공통

번호	문항	얼마나 자주?
64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65	어떤 단어가 보통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때 혼란스러워 한다. (예: 잘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 누군가가 '차갑다'라고 묘사하는 경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66	의사소통 능력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 친숙한 사람과 일대일로는 대화를 잘하지만, 또래 아이들과 모여 있을 때는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67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문장 속의 한두 단어만을 들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	
68	문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한다.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니?"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아니, 너는 그냥 너의 한 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꺼내고 다른 다리를 꺼내고 일어서면 돼."라고 대답한다.)	
69	반어를 이용한 유머를 이해할 수 있다. (예: 비가 오고 있을 때, 누군가 "날씨가 아주 좋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70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예: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낯선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71	지켜야 할 비밀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72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73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74	다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75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한다.	
76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대화를 조절한다. (예: 대화중 상대방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말을 줄이거나 주의를 집중시킨다.)	
77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	
78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흥미를 보인다.	
79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80	대화중에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무언가를 뒤적이는 등 딴짓을 한다.	
81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것에 대해 혼자 이야기한다.	
82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진다.	

83	어른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며, 겸손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한다.	
84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도,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예: 대화참여자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에 참여하기보다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85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을 한다.	

부록 3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범주		측정 문항
말 하 기	유창성	말을 하는 도중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1~3초 정도를 침묵으로 흘려보낸다.
		말을 잘 시작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다.
	논리적 구성	‘그’ 혹은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말한다. (예: 어떤 영화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그 사람 정말 멋지더라.’고 말한다.)
		어떤 이야기에 대해 말하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혼동한다.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로 말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잊어버린다.
	언어적 표현	줄임말을 사용한다. (예: 문학상품권을 ‘문상’, 이성 친구를 ‘남친’ 혹은 ‘여친’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를 혼동한다. (예: 하루살이를 모기라고 한다든가, 잔을 컵이라고 말한다.)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ㅅ’을 /th/로, ‘사랑’을 ‘샤랑’으로 발음하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다.
		‘존나/줄라’, ‘병신’ 등의 욕설이나 ‘숙제 개 많아’, ‘꺼져’ 등 격이 떨어지는 말을 사용한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계정을 전달할 때처럼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한다.
	비언어적 표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소리의 높낮이 등을 조절한다. (예: 발표를 할 때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억양이나 말투, 목소리의 높이, 크기 등을 달리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때 미소를 짓는다.
	자기 표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데.”라고 분명히 말한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요구를 말할 수 있다.

듣 기	사실적 듣기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한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한 얘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한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쉽게 안다.
	추론적 듣기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우회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예: 밤늦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는 경우,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고 자라는 의미임을 안다.)
		대화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언급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다이어트 하는 친구가 “어젯밤에 라면 먹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했음을 안다.)
		대화 중간에 끼인 경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비판적 듣기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 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장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 (예: 누군가 “좌석 배치는 키를 우선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말에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예: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없어.”라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상대방의 말에 “그래서?”, “그런데?”, “어머, 정말?” 등과 같이 관심을 표현한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내 감정을 이입한다. (예: 성적이 떨어져서 시무룩한 친구 앞에서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화를 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언 통	맥락	어떤 단어가 보통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때 혼란스러워한다. (예: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차갑다’라고 묘사하는 경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문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한다.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니?”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아니, 너는 그냥 너의 한 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꺼내고 다른 다리를 꺼내고 일어서면 돼.”라고 대답한다.)
		반어를 이용한 유머를 이해할 수 있다. (예: 비가 오고 있을 때, 누군가 “날씨가 아주 좋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즐겨워한다.)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예: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낯선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다른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한다.
	태도	친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대화중에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무언가를 뒤적이는 등 딴짓을 한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것에 대해 혼자 이야기한다.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진다.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김대희·강경숙

이 연구는 목적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의사소통의 네 가지 요소 중 메시지를 제외한 화자, 청자, 맥락을 변인으로 두고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화자 변인에 의해서는 말하기 능력, 청자 변인은 듣기 능력, 그리고 화자와 청자 변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계, 맥락에 해당하는 공통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말하기 능력’의 세부 요소로는 유창성, 발화의 논리적 구성,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의 5요소로 구분하였고, ‘듣기 능력’으로는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의 4요소로, ‘공통 능력’으로는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총 12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1차로 확인한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해 통계 분석을 통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의사소통 능력, 화법 교육,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발화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ventory to Measure Communicative 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Kim, Dae-hee & Kang, Kyu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components of communicative ability and to develop of inventory to measure communicative 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subcategories of communicative ability have been set based on speaker, listener, and context except message among four factors of communication. speaker-speaking ability, listener-listening ability and context-common ability. Speaking ability involves fluency, logical construction, verbal expression, nonverbal expression and self-expression. Listening ability contains explicit listening, inferential listening, critical listening and emphatic listening. Common ability involves communicative context, social relation, and attitude. The inventory has been set through several steps: 1) Developing initial inventories to measure communicative ability classified by subcategories 2) reviewing from 3 experts of communication area 3) surveying 479 high school students 4)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5) eliminating inappropriate inventories 6) setting inventory classified by subcategories to measure communicative ability.

KEYWORDS inventory to measure communicative ability, communicative ability, speaking and listening education, speaking ability, listening ability, speech